

뉴욕증시 -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 약세 ...혼조 마감

1. 국제유가, 이란 원유시장 복귀 등 공급 과잉 현상 이어질 전망에 3.3% 급락 ...약 12년래 최저치
 - * 에너지업종 -2.2%
 - * IEA, 국제유가 추가하락 경고 ...원유시장 공급 과잉,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것
2. 중국발 성장둔화 우려 고조...작년 GDP 6.9% 성장...25년래 최저치
 - * 상하이종합지수, 성장률 부진으로 당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3.22% 상승 마감
 - * 4분기 GDP (YoY) 6.9% → 6.8% (예상:6.9%) ...예상 하회 &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 * 12월 산업생산 (YoY) 6.2% → 5.9% (예상:6.0%) ...예상 하회
 - * 12월 소매판매 (YoY) 11.2% → 11.1% (예상:11.3%) ...예상 하회
3.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4%로 하향
4. 美-1월 NAHB주택시장지수 60 → 60 (예상:61)
5. 유로존-11월 경상수지 25.6B → 26.4B (예상:19.3B)
 - 12월 CPI (YoY) 0.2% → 0.2% (예상:0.2%)
6. 영국-12월 CPI (YoY) 0.1% → 0.2% (예상:0.1%)
 - 독일-12월 CPI (MoM) -0.1% → -0.1% (예상:-0.1%)
 - 1월 ZEW경기신뢰지수 16.1 → 10.2 (예상:8.2)

국제 증시			국제 상품		
DOW30	16016.02	(+0.17%)	WTI	28.46	(-3.3%)
NASDAQ	4476.95	(-0.26%)	COMEX금	1089.10	(-0.15%)
S&P500	1881.33	(+0.05%)	COMEX구리	1.9775	(+1.75%)
KOSPI	1889.64	(+0.60%)	주요국가 10y국채		
KOSDAQ	681.25	(-0.35%)	한국	2.065%	(+2.6bp)
국제 통화			미국	2.038%	(+0.3bp)
유로/달러	1.0909	(+0.0012)	영국	1.70%	(+0.7bp)
유로/엔	128.25	(+0.40)	독일	0.55%	(+1.2bp)
달러/엔	117.56	(+0.22)	프랑스	0.86%	(-0.1bp)
달러/위안	6.5596	(+0.0006)	이탈리아	1.56%	(-0.7bp)
원/달러	1205.90	전일 1210.90	스페인	1.70%	(-3.9bp)
NDF	1207.80 / 1208.50원	0.95원 상승	그리스	8.78%	(-6.1bp)

금일 예정 지표			
국가	경제지표	Previous	Forecast
미국	-12월 건축허가	1.282M	1.200M
	-12월 주택착공 (MoM)	10.5%	1.6%
	-12월 CPI (MoM)	0.0%	0.0%
	-12월 근원CPI (MoM)	0.2%	0.2%
영국	-11월 실업률	5.2%	5.2%
독일	-12월 PPI (MoM)	-0.2%	-0.4%

1.전일 장중 동향

*KTB : 시가 109.67 / 종가 109.65

*LKT : 시가 126.70 / 종가 126.39

1)전일 미국 금융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 브렌트유는 1.57달러 하락한 배럴당 24.65달러를 기록.
 -국고채금리는 장 초반 보험권을 유지하다가 강세로 전환. 외인이 10년 국채선물을 순매수하면서 10년 선물을 중심으로 강세폭을 키움. 지난해 중국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함.
 -중국은 지난해 중국 경제가 6.9% 성장해 25년만에 7% 성장률이 붕괴됐다고 밝힘. 하지만 금융시장은 중국의 경기둔화가 확인된만큼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기대했고, 아시아 증시는 상승.
 -외인이 국고 10년 지표물인 15-8호를 순매도하면서 장기물의 약세 되돌림이 심화됨. 이들은 잔존만기가 3년 가량 남은 5년물 비지표인 14-1호는 순매수하면서 스티프닝을 주도함.

2)10년 국채선물은 낙폭을 다소 키움. 중국 증권시장의 영향도 받았지만, 외인이 장외채권시장에서 단기물을 사면서 장기물을 파는 교체거래를 한 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외인 현물 매매가 스티프로 방향을 잡아서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보임. 아무래도 어제 받은 입찰 물건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임.
 -거기에 중국 증시나 유가 이슈 등이 지속할지에 대한 의심과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란 점이 솟재료로 작용함.

3)IRS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오르며 기간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짐. CRS 금리는 변동성이 제한됨.
 -중국 성장률이 6%대 후반이면 과거보다 부진하긴 하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었음. 뉴욕시장이 휴장했고 이란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오지 않음.
 -IRS는 채권을 따라 커졌던 가격 부담이 중국 주가 상승으로 되돌려졌는데 연말지표가 나올 때까지 변동성이 제한될 수 있음. CRS는 달러-원 환율이 확실한 안정세를 갖고 신흥국 불안도 잠잠해야 위쪽을 강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내 주요 금리			BOND SWAP SPREAD		
3y	1.644%	(-0.2bp)	3y	-2.1bp	(+0.5bp)
5y	1.807%	(+0.9bp)	5y	-9.2bp	(-0.2bp)
10y	2.065%	(+2.6bp)	10y	-17.5bp	(-0.9bp)
CD	1.670%	(0)			

IRS OUTRIGHT			IRS SPREAD		
1Y	1.5850%	(-0.25bp)	1*2Y	0.00	(+0.25bp)
2Y	1.5850%	(0)	2*3Y	3.75	(+0.25bp)
3Y	1.6225%	(+0.25bp)	2*5Y	13.00	(+0.75bp)
5Y	1.7150%	(+0.75bp)	3*5Y	9.25	(+0.5bp)
7Y	1.7900%	(+1.25bp)	5*7Y	7.50	(+0.5bp)
10Y	1.8900%	(+1.75bp)	5*10Y	17.50	(+1.0bp)